

한국 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 전환에 대한 모색*

- ‘공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지성 (루터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II.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1. 특별한 경계인 : 북한이탈주민의 이름
2. 전향의 대가 : 정착 단계 및 지원 현황
3. 불편한 동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III. 북한이탈주민 선교의 빛과 그림자

1. 탈북민의 첫 종교 : 한국 교회와 북한이탈주민의 만남
2. 누구에게나 친절한 한국 교회: 보상과 도구화의 문제

IV. 나아가는 말: 공감적 상상력으로 마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기
2. 공감적 상상력 그리고 하나의 제언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5.04>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루터대학교 제3차 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연구로 2019 한국 기독교학회 제48차 정기학술대회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선교와 목회’에서 “공감의 눈으로 북한이탈주민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현장 토론 및 제언을 토대로 수정하여 작성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Christianity: Focused on Sympathetic Imagination

Associate Prof., Lee, Jie-sung (Luther Universit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ame to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until the first half-year of 2019 totaled 33,022. In spite of the 'improvement of adaptation and support system'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feel warm to South Koreans. Indeed,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ws that many people in South Korea regard North Korean defectors as outsiders and do not accept their presence, which was worse than we expected.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began with these concerns about how Christians should see North Korean defectors and how to live together. To deal with this issue, this paper identified the situation for settlement and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looked at the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by relevant institutions like Hanawon,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that see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target of North Korean missions like a tool. And this paper suggested the Korean church to communicat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sympathetic imagination of Martha Nussbaum to solve the related problems that the Korean church sees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object of charity, welfare support, and a tool for church growth.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mission, Hanawon's Religious Education, Martha Nussbaum, Sympathetic Imagination

I. 들어가는 말: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본 연구는 탈북민들과 개신교 극우 집단의 연결고리를 경계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다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개신교 극우 세력으로 지목되는 ‘탈북민’ 집단 중 일부가 알바데모에 동원되기도 하고 이들 대부분 극우 탈북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¹⁾ 언론을 통해 정치 집회에 탈북민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상황이 부각되며 ‘탈북민’은 ‘사회적 갈등’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그 정체성이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우선 극우 성향의 연구를 찾기 위해 실향민들과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을 떠나 남한에 온 실향민과 탈북민 모두 북에서 남으로 이념이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쟁 통에 겨우 머리 누일 곳조차 찾기 어려웠던 그들은 일단 신분을 얻어야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²⁾ 그러려면 소위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반공’이 살길임을 체득하고 북에서 살던 과거의 삶과 스스로 분리시키려 애썼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얼마나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이다.³⁾ 이제 그 시절의 실향민들은 한 세대를 지나며 정치적 성향으로 실향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고향을 향한 망탈리테(mentalités)는 뺏속 깊이

1) 김진호,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우파 - 또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문화』 제95호 (2017) 79~87, 이지성, “협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종북개이 협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2018), 213,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8) 213, 재인용.

2) 홍용표, 모춘홍, “탈북민에 대한 현대 가능성 탐색” 『통일인문학』 제78집, (2019), 316.

3)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43.

새겨져 있다.

정책의 선택을 요구받은 면에서 탈북민도 비슷한 경험으로 남한의 생활을 시작한다.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하나원⁴⁾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한국에 정착하면서 그들 또한 '잠재적 간첩'이라는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북'을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남한 사회에 좀 더 깊숙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⁵⁾ 하지만 실향민들과는 달리 탈북민의 경우는 아직까지 자신의 출신을 밝히기를 불편해 하며,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경계에서 서성이고 있다. 그 이유, 혹은 그들과 함께 살아 나갈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범국가적으로 '통일의 준비'라는 명분으로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며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 중이다. 그런데 정작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온도는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기원위원회에서 시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⁶⁾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단지 정부의 특별한 지원에 대해 막연히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⁷⁾ 그리고 지난 8월 초, '북한이탈주민 엄마와 아들이 굶어 죽은' 그 사건 앞에서 본 연구는 탈북민의 극우 성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아닌 탈북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갔다. 과연 제대로 마주하고

4)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국가기관의 합동신문 절차를 거친 후, 하나원에 입소, 12주간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5) 홍용표, 모춘홍, "탈북민에 대한 현대 가능성 탐색", 317.

6) 이 내용은 2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7) 이학준,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들"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서울: 쌤앤파커스, 2012), 286. 탈북민에 관한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취재한 이학준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지구상에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온정을 쏟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유독 탈북자에게엔 냉정합니다. 이들이 같은 동포들에게 무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서럽습니다. 어느 탈북자는 치를 떨며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바라보지 않고 분석이 가능할까 하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탈북민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독교인으로 탈북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 논문은 그 고민의 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적응과 지원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범사회적으로 각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었다. 기독교계에서도 다양한 관심으로 윤리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복지, 상담 그리고 교육 등 정착에 관한 연구들도 계속 발표되는 중이다. 사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에 특별한 시선을 갖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개신교회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시선의 이행 과정과 그 안에서 발견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II.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

1. 특별한 경계인 : 북한이탈주민의 이름

2019년 상반기 54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이주했다. 2005년 이후 2,0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는 1,500명, 지난해는 1,137명이 입국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후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33,022명이다.⁸⁾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밟았다고 알려진 데 비해서는 체감적으로 매우 적은 인원이다. 통계적으로도 2018년 12월 기준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367,607명 중 중국이 45.2% (1,070,566명, 한국계 중국인 포함), 태국 8.4% (197,764명), 베트남 8.3% (196,633명), 미국 6.4%

8) 통일부, (2019년 6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최종검색일 2018/08/18).

(151,018명), 우즈베키스탄 2.9% (68,433명), 일본 2.6% (60,878명)⁹⁾에 이어 기타 국가군에 속하는 13위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들에 대해 호칭부터 처우, 인식과 정책 등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여 왔다. 우선 현재 이들을 부르는 법적인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¹⁰⁾이다. 실향민, 귀순 용사와 귀순 동포라는 한국 전쟁의 역사적 흔적 이후, 탈북난민,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주민, 북한이탈주민까지 이들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호칭부터 이주의 복잡한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부에서 제안한 ‘새터민’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들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여전히 복잡한 맥락이 담겨 있다.¹¹⁾ ‘새터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 중 일부의 “탈북을 먹고살기 위해 넘어온 사람들로 매도한 단어”¹²⁾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진 결과,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이탈’이라는 어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통일부는 2013년부터 ‘탈북민’을 약어로 인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9) 법무부, (2018, 12) “출입국 통계-체류 외국인” <http://www.moj.go.kr/moj/2412/subview.do> (최종검색일 2019/08/18). 이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159,206 명으로 결혼 이민자의 3분의 1정도 인원으로 보인다.

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 제 2조 참조.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구분의 이유를 제외하고 법정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약어인 ‘탈북민’을 사용한다.

11) 북한이탈주민 호칭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조명되어 왔다. 이화숙, 원순옥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2호, (2016), 이 연구에서는 호칭을 ‘탈북민’으로 명명한다. 이수정은 “북한출신주민 2만명 시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에서 ‘북한 출신주민’, 남한 원주민 또한 ‘남한 출신주민’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2) “탈북민 3만명 시대, 새터민? 귀순인? ... 호칭 정리 안돼” 세계일보, (2016년 10월 3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61002001069?OutUrl=naver> (최종검색일 2019/07/22).

그런데 공식 명칭부터 사회 전반에서 호명하는 명칭에는 모두 ‘탈(脫)’, 즉 자신들의 모국인 북한을 ‘탈출’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을 ‘적’으로 보고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은 그 호칭만큼이나 처우 또한 정권에 따라, 혹은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특별히’ 구분되고 ‘특별히’ 관리되어 왔다.

2. 전향의 대가: 정착 단계 및 지원 현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이들이 입국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는 종종 이들을 구별 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암묵적으로 특정한 역할이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¹³⁾ 이들을 심문/관리/교육하는 시스템 전반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끊임없이 사상 관리를 하면서, 전향과 이탈의 대가로 기본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해 주는 구조’¹⁴⁾ 로 이루어져 있다. 즉 특별한 처우 이면에는 ‘교환’ 과 ‘거래’가 전제되어 있는 셈이다.

일단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보호’라는 명분으로 북한이탈보호센터에서 3개월가량 구금 상태로 있게 된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고향을 버렸고 전향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해서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하게 된다. 즉 “얼마나 완벽하게 전향했으며, 얼마나 모국을 부정하는지”를 증명한 후에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은 복잡

13)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제5집 1호, (2018.03) 46.

14) 위의 논문, 47.

하고 실효가 부족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더욱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정착 지원¹⁵⁾이라는 제도와 체계 앞에서 이들은 한국 사회의 작동 방식이란 사실상 ‘보상’과 ‘거래’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 가면서 차츰 북한 출신이라는 상품가치를 부각시켜 나간다. 지난 정권에서 방송 채널마다 등장해서 왜곡된 북한 정보를 전했던 북한이탈주민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국정원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탈북민들, 이들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거래와 보상의 메커니즘을 인식하게 된 결과 아닐까. 즉 “북한을 부정해야 한국 사회에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사회 내에서 두 사회에 완벽하게 속하지도, 그렇다고 속하지 않지도 않은 중간적 존재인 ‘경계인’의 위치에 머물게 된 것”¹⁶⁾이다.

지난 2016년 마곡지구 ‘남북통일문화센터’ 건립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났다. 통일부가 탈북민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한 ‘남북통일문화센터’는 시공 초, 탈북자 관련 시설을 혐오시설처럼 여기는 지역 입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었다.

3. 불편한 동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15) 지원제도는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으로 구분되는데, 정착금에는 1인 세대 기준 8백만 원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2,510만 원,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등 최대 1,54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홍용표, 모춘홍, 위의 논문, 317.

차별조사』 결과 또한 우리 국민이 탈북민을 수용에 얼마나 부정적인지 잘 나타난다.¹⁷⁾ 우선 일반국민은 주로 언론(89.5%)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정부(4.7%), 시민단체(1.9%), 종교단체(1.2%), 직접 만남(1.6%)의 경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일반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관심도가 높다. 게다가 일반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사람(48.2%)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북한출신 남한사람(33.3%)으로 인식한다고 보고되었다.¹⁸⁾

또한 일반국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매우 낮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주민과 똑같이 어렵다거나(44.1%),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45.7%),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책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나(50.5%) 하는 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는 응답자들이 수용하려는 응답자들보다 많았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도 열심히 일하면 국회의원이거나 시장, 도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46.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22.6%)보다 많다. 또한 남한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17) 북한이탈주민 국민인식 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로 연구되어 '통일의식조사' 일부분으로 매년 발표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국민들의 인식변화 추이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경훈 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167-169.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홈페이지 게시 합체_최종 보고서, (2017.01.3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16&menuid=001003001004&boardid=617032>, (최종검색일 2019/07/22) 2017.

18) 위 보고서, 14.

출신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응답자들(36.4%)이 꺼려진다는 응답자들(26.6%)보다 많았다. 즉 남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을 남한 국민들과 동일하게 수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안보나 정치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드러났다.¹⁹⁾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관한 진술에 대한 응답

	그렇다 16)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17)	차이18)	평균19) (5점척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과 똑같기 어렵다	44.1	28.1	27.8	16.3	2.8
2. 북한이탈주민도 열심히 일하면 남한주민과 같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46.6	30.8	22.6	24.0	3.2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45.7	31.5	22.8	22.9	2.7
4.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책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0.5	32.1	17.3	33.2	2.5
5. 남한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꺼려진다	26.6	36.9	36.4	-9.8	3.1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2014, 107-109 (값이 클수록 수용도가 높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원인도 주목할 만하다. 편견의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말투, 외모,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남한주민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거나 근로 의욕이 약하거나 범죄 및 일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형제를 버리고 혼자 내려와서거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살아서 편견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9) 위 보고서, 107-108.

차별의도에 대한 의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꺼리겠다는 비율(24%)보다 꺼리지 않겠다는 비율(40.9%)이 더 높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교사에게 자녀교육을 맡기는 것을 꺼리겠다는 비율(24.2%)보다 꺼리지 않겠다는 비율(38.5%)이 더 높고, 자기 자녀가 북한이탈주민과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겠다는 비율(16.7%)보다 꺼리지 않겠다는 비율(37.7%)이 더 높다. 한편 주택을 임대할 때 북한이탈주민보다 남한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겠다는 비율(33.1%)과 그렇지 않겠다는 비율(31.3%)은 거의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일반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다르게 대우하려는 의도가 보통 수준으로 특별히 차별하려 하거나 그렇다고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려는 의지도 강하지 않다.²⁰⁾

〈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원인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차이	평균 (5점척도)
1. 말투 또는 외모가 남한주민과 달라서	47.7	26.0	26.4	21.3	2.8
2. 교육 수준이 낮아서	27.9	33.8	38.4	-10.5	3.1
3. 소득 수준이 낮아서	24.9	33.4	41.7	-16.8	3.2
4. 북한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때문에	63.1	24.5	12.5	50.6	2.4
5.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44.1	28.1	27.7	16.4	2.8
6.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여서	23.6	35.4	41.0	-17.4	3.2
7. 범죄, 일탈 등 사회문제를 일으켜서	21.7	37.0	41.3	-19.6	3.2
8. 부모·형제를 버리고 혼자 내려와서	15.3	34.5	50.1	-34.8	3.4
9. 북한이 경제적으로 뒤처지고 못살아서	19.0	40.5	40.5	-21.5	3.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2014, 107-109 (값이 클수록 수용도가 높음).

20) 위 보고서, 122.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는 대부분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정적 이미지들을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과 함께 투사하여 탈북민을 어찌면 ‘가장 이질적인 타자’이며, 개인이 아닌 구분적인 집단²¹⁾으로 투영시키고 있다. 특히 ‘탈북민의 대거 등장으로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결국 국민 세금이 부담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49.7%라는 점은 경제적인 문제가 한국 사회 내에서 연대와 감정적 유대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지만, 정서적으로는 국민으로 인정하지도 또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계인으로 머물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²²⁾라는 외침이 구호로 들리지 않는다.

2019년 여름 북한이탈주민 모자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그들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또 한 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 각계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제까지 물적 토대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정책에 대해 돌이켜 보며 경제적 지원체계를 넘어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들을 시도 중이다. 과연 이 지점에서 한국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21)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위의 논문, 45-46.

22) 이학준,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위의 책, 286.

III. 북한이탈주민 선교의 빛과 그림자

1. 탈북민의 첫 종교 : 한국 교회와 북한이탈주민의 만남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위해 관련된 단체는 통일관련 단체, 인권 단체, 대학과 시민 단체, 지역 봉사 단체, 종교 단체 등이 있는데 그중 종교단체가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다.²³⁾ 특히 종교단체 중에서도 기독교는 탈북 과정에서 은신처와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착 후 경제적 도움과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등 탈북민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 기독교가 탈북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이후 정부의 정착 지원 방향이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립되던 즈음이다. 본격적으로 1999년 안성 하나원 부근에 하나교회²⁴⁾가 세워지면서 각 교단과 개교회, 단체들의 활동이 시작했다. 하나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귀순동포지원본부와 영락교회 등을 중심으로 탈북민 선교를 자매결연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신앙생활과 취업 알선 등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시설로 세워졌다.

탈북 과정 중 70% 이상이 전도사와 목사 등에 도움을 받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원에 입소한 후 다른 종교기관보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황문규 목사는“하나원에서의 종교 교육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임을 강조”²⁵⁾

23) 최승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신교 단체의 지원과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제29권 2호, (2017) 155.

2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85855-20020721.html?searchterm:utf8:u-string=%20EA%B0%95%EC%B2%A0%EB%A7%8C%20EB%AA%A9%EC%82%AC%20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지원교회 설립” 1000-1-1 \(2002-7.21 추정\) \(최종검색일 2019/07/22\).](https://www.rfa.org/korean/in_focus/85855-20020721.html?searchterm:utf8:u-string=%20EA%B0%95%EC%B2%A0%EB%A7%8C%20EB%AA%A9%EC%82%AC%20자유아시아방송,%20탈북자지원교회%20설립%201000-1-1%20(2002-7.21%20추정)%20(최종검색일%202019/07/22).)

25)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6282019131944.html?searchterm:utf8:u-string=%20ED%99%A9%EB%AC%B8%EA%B7%9C%20자유아시아방송, “통일선교주](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6282019131944.html?searchterm:utf8:u-string=%20ED%99%A9%EB%AC%B8%EA%B7%9C%20자유아시아방송,%20통일선교주)

한다.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 중, 중국에서 교회를 찾아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북한을 갓 벗어난 탈북민들에게는 첫 종교 경험의 대상이 된다.²⁶⁾ 하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하는데, 탈북민들은 이 세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택은 개인에게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그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는 탈북 과정에서 접해본 친숙함과 다수의 선택을 추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²⁷⁾ 물론 탈북과정과 종교 교육 중 마주치게 되는 권위적인 목회자들의 모습과 북한 당 간부와의 유사성을 보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제3국에서의 경험상 교회를 찾아가고, 선교사를 만나면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개신교를 선택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또한 탈북민들은 의식주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머무는 미션홈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밥 먹고 성경만 읽는’ 시간을 통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아는 건 많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²⁸⁾ 이러한 경험이 하나원에서의 종교 선택과 정착 후 사회에서 교회와의 깊은 연계를 갖는 계기가 됨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탈북민 13,349명을 대상)에 따르면 종교 활동의 시점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

간 그리고 탈북자” 2019.07.01.(최종검색일/08/08) 황문규 목사는 2015년~2019년 4월까지 하나교회를 담임했다. 영락교회에서 파송되었고 현재는 부산 수영로 교회 통일비전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26) 이순형·최연실·진미정.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24,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11.

27) 위의 책, 112. 이순형 외의 연구에 따르면 세 종교중 개신교가 60%, 천주교 30% 불교 10% 정도이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남한에 기독교가 천만이 넘는 것을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건,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하나원 종교교육 천주교 담당자 인터뷰 참조.

28) 위의 책, 121.

민보호센터 및 하나원에서 종교 활동을 시작한 탈북민이 3197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833명(30.1%) 하나원 2734명(29.1%) 중국 외 제3국 468명(5.0%) 순이었다. 중국이나 제3국의 경우, 탈북 과정 중 선교사나 선교 단체의 영향으로 종교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서는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이 기독교인으로 집계된다고 밝히고 있다.²⁹⁾

탈북민들이 정착한 후 개신교의 지원 활동은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담당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예배 뿐 아니라 정착에 필요한 업무 지원과 의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기독교 단체가 함께 탈북청소년을 위해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등 대안학교 설립, 정규학교 부적응과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누구에게나 친절한 한국 교회: 보상과 도구화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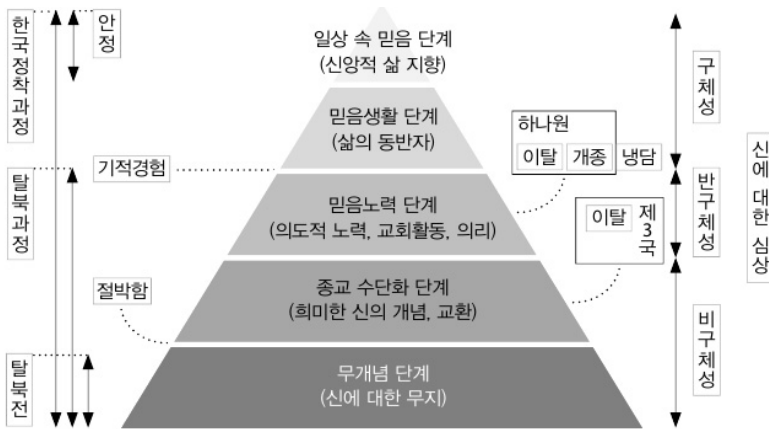
이처럼 개신교의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민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120명의 탈북민을 7년 동안 추적한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의 연구³⁰⁾와 이순형, 최연실, 진미정의 실증적 연구³¹⁾는 탈북민들이 완전히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29) “남한 정착 탈북민 10명 중 4명은 기독교인”, 국민일보, (2019.02.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750&code=23111111&sid1=chr> 참조 (최종검색일 2019/07/22).

30) 유시은, 엄진섭, 윤덕룡, 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8) 5.

31) 이순형·최연실·진미정.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소총서 24,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3.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정립이 불가능한 점, 목회자나 교인들에 대한 실망, 이해할 수 없는 개신교 교리로부터 직장생활이 바쁘고, 강요당하는 것이 싫거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탈북자들을 교회 성장과 통일 선교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보고된다.



출처 : 이순형 · 최연실 · 진미정.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그림 1〉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 변화 단계

이순형은 북한이탈주민의 종교 경험을 5단계로 구분했는데, 그중 두 번째 단계인 ‘종교 수단화의 단계’에서 ‘믿음 노력 단계’와 ‘믿음 생활 단계’의 이행 과정 속에서 대부분 탈북민들이 종교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교회에 가졌던 기대는 두려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던져지면서 위로와 안정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절박했던 시간을 잊고 교회를 도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탈북자들이 개신교와 처음 마주하면

서부터 비롯된다.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의 사선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개신교를 접한다. 즉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³²⁾ 물론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탈북민들에게 음식과 숨을 곳과 돈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처럼 생각될 수 있다. 어찌면 이들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되는 시작은 모종의 '거래'였던 셈이다. 물론 이러한 거래로 시작된 믿음을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단계는 탈북민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분명 아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도구화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교회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탈북자들의 치열한 정착 과정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정착지원금 혹은 선교비 등으로 포장된 '물질'에 대한 보상³³⁾은 그들에게 종교생활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점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전도우선주의가 바탕이 된 거래와 보상에 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우 중요하고 적실한 제안이라고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력해 온 물질 제도적 정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향한 실질적인 환대 수준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김현경은 타자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질문을 괄호 안에 놓은 채 그를 환대하는 것이다³⁴⁾라고 말한다.

32) 최현중, "북한이탈주민과 기독교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52권, (2018), 236-237.

33) 탈북민과 물질 보상 그리고 나아가 이단 교회의 접촉에 대한 연구는 『현대종교』 '이단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현대종교』 이단뉴스, (2017) 참조.

3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5) 207.

그런데 우리는 과연 탈북민과 ‘환대’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단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묻지 말고 보답을 생각하지 말고 자리를 나누는 그런 환대가 과연 가능할까?’

환대에 관한 풍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이기호의 소설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오빠, 강민호』의 주인공들과 지금 탈북민을 대하는 한국교회가 묘하게 겹쳐진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친절하고 남들에게 호의적인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호의를 베풀수록 관계는 더 어긋난다. 주인공들은 불쌍한 이웃의 직장을 구해주고 등록금을 빌려주고 갈 데 없는 소녀에게 집을 제공한다. 모두 돈으로 해결한 문제들이다.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덕분에 해피엔딩을 맞이해야 하는데 소설 속 인물들은 어긋나기만 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누구도’ 환대받지 못한 주인공들을 통해 작가는 “당신의 환대는 무조건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환대받은 타인은 당신의 환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³⁵⁾

탈북민을 대하는 한국 교회에 질문을 돌려본다. 교회의 탈북민을 향한 환대는 무조건적인가? 환대는 탈북민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대하는 교회 자신을 환대하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행한 탈북민 선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을 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탈북민과 물리적인 거래와 보상을 넘어서 진심어린 관계 맺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환대’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환대’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우선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탈북민이라는 정체가 삶의 도구가 되어 수많은 말들

35) 이기호,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김형중의 해설 “다시, 환대에 대하여” (과주: 문학동네, 2018) 287.

을 쏟아내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털어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탈북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일, 거기에서 환대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인다.

IV. 나아가는 말: 공감적 상상력으로 마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기

누스바움은 그 시작을 ‘공감’ ‘연민’ 그리고 ‘상상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분노는 점점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의 소수자들을 향하던 혐오는 그 영역과 대상을 무작위로 확장하고 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외국인 혐오, 난민 혐오, 기독교 혐오 등 끝없이 진화 중이다. 전방위적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혐오와 분노는 구성원들은 서로를 낙인하고 도구화하며 결국 서로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게 된다. 누스바움은 <*The Religious Intolerance : Overcoming the Politics of Fear in an Anxious Age*>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면의 눈 Inner eyes 으로 바라보기’가 필요한데, 그 내면의 눈을 ‘공감적 상상력’ Sympathetic Imagination³⁶⁾ 이라고 부른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아니, 그렇지만 에드가 알란 포를 사로잡은 유령이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유령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고, 섬유질과 체액으로 이루어진 실체가 있는 인간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⁷⁾

36) Martha Nussbaum, *The Religious Intolerance : Overcoming the Politics of Fear in an Anxious Ag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 2012) 139. 여기서 누스바움은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공감적 상상력 외에, 감정이입 Empathetic Imagination 과 참여적 상상력 participatory imagination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누스바움은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누스바움은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랄프 엘리스(Ralph Ellison)의 역작 『보이지 않는 사람 *Invisibile Man*』을 인용한다. 엘리스에게 보이지 않는 인간은 1950년대 미국 사회의 흑인들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존재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 그리고 교회들은 탈북민을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여기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다.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소수자들처럼, 탈북민들 또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남한 구성원들은 알고 싶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에게 듣고자 한 건 늘 북한에 대한 이야기일 뿐,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시 북한으로 탈출한 탈북민을 다룬 다큐멘터리 〈북도 남도 아닌〉³⁸⁾ 최중호 감독의 말이다. TV만 틀면 만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위험천만한 사생 탈출 이야기와 중국에서의 드라마틱한 선교사와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인 탈북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쉽게 들어 본 기억이 없다. 공짜로 집 빌려준 집주인처럼 필요할 때만 불러 세우고 눈치 보는 세입자는 주인이 원하는 대답만 읊어댄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탈북민들은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누스바움은 “공감적 상상력은 두려움의 반대로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은 아마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성향일 수 있다”³⁹⁾라고 말한다. 공감적 상상력을 가지고 내면의 눈으로 바라볼

37) 위의 책.

38) 최중호 감독의 〈북도 남도 아닌, 2017〉 다큐멘터리는 남한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제3국으로 떠난 탈북민의 삶을 통해 탈북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조명하고 있다.

39) Martha Nussbaum, *The Religious Intolerance*, 146.

때,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두렵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삶의 온전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는 동일한 인간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탈북민이나 남한 국민들 모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바라보기를 회피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뉴스바움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공감적 상상력’이며 이것은 문학 작품을 읽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바움은 “문학, 즉 이야기를 통한 교육은 학생들을 섬세하게 보고 풍부하게 반응하는 도덕적 상상력을 획득할 수 있다”⁴⁰⁾라고 한다.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공감적 상상력을 가지고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섬세하게 깨닫고 풍부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균형 있게 지각할 뿐 아니라 타인과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중훈은 이미 우리 사회는 탈북민을 남한 사회의 경계인으로, 남한 사회가 보지 못하는 부정적인 면을 건강하게 비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통일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자료 및 매개자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⁴¹⁾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남한 교회들의 교육과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40) Martha, C. Nussbaum, *Love's Knowledge : Essay on Philosophy and Literature*, 168-194. 이지성 “타인의 고통, 연민을 넘어 공감으로” 『대동철학』 제63집, (2013), 81-102. 재인용.

41) 정중훈, “탈북 새터민들의 상황과 한국 교회의 역할 모색” 『신학논단』 제60호 (2010) 146-147.

2. 공감적 상상력 그리고 하나의 제언⁴²⁾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탈북민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탈북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과연 굶어 죽은 탈북민 엄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들 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광장에서 외치는 알바 데모⁴³⁾ 탈북민의 구호에 가려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다.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이 과정을 누스바움 식으로는 이야기를 통한 교육, 기독교인들에게는 전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도 있겠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노력했던 북한 선교 혹은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의 영향으로 탈북과정과 제3국 거주 과정에서 탈북민과 한국교회는 낮은 관계 맺기가 가능해졌다. 정착 이전 과정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혹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선교 방식인지에 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 관계 맺기라는 것이 적어도 탈북민과 한국 교회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다리를 좀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앞서도 제시했듯이 물질 지원을 넘어서 이야기를 통해 ‘공감적 상상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며 그 이야기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이다.

42) 기독교 내러티브와 ‘공감적 상상력’에 대한 좀 더 견고한 논의 진행은 추후 후속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안들을 강구하고자 한다.

43) ‘알바 데모’ 라는 말은 표준어로 논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나, 거리의 관계 데모에 일당을 받으며 동원되는 참가자들을 일컫는 속칭으로,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현 사회 시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의 내러티브, 그중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대단한 금은보화를 똑같이 나눠서 모두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지 않았다. 그저 삶의 고단함이 담겨있는 소박한 음식을 통해 함께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한국 교회가 오병이어의 내러티브를 탈북민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에게 오늘의 배부름을 위한 물질적 지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도와 닮아 가는 삶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정착과정 단계에서부터 정착 후까지 범 교단과 교회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탈북민들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과 기독교 이해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와 더불어 기독교 내부에서 좀 더 면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탈북민과 기독교를 조명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담고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공감적 상상력'으로 탈북민을 대하는 시작일 것이다. 이 작업은 연구자 개인의 연구 보다는 교단과 교회, 신학계가 함께 통합적 연구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지향할 탈북민 나아가 통일 선교의 단초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지원으로 현장 목회자와 기관 담당자, 성서학, 조직신학, 윤리학, 사회복지, 상담학자들의 총체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기독교를 넘어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종교의 역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정착 과정 혹은 정착 후, 종교교육의 단계에 이러한 연구의 결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독교연합체가 정부 기관에 제안, 공식적으로 적용된다면 탈북민 정착 과정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단지 시혜나 복지지원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교회 성장의 도구

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의 과정이다. 그 일을 통해 서로가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공동체를 일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실현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보고서

Nussbaum, M. C., *Upheavals of Thought :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 Pr. 2001.

_____, *The Religious Intolerance : Overcoming the Politics of Fear in an Anxious Ag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 2012.

_____,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파주 : 궁리, 2013.

_____,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서울: 민음사, 2015.

_____, 『혐오에서 인류애로』, 강동혁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및 차별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7.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5.

임경훈 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이기호,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파주: 문학동네, 2018.

이수정, “북한출신주민 2만명 시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이순형 · 최연실 · 진미정,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24. 서울, 서울대 학교출판문화원, 2015.

이학준,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는 사람들”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서울: 쌤앤파커스, 2012.

• 논문 및 연구물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제5권, 1호 (2018), 43-74.

김용환,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연금술사” 『오늘의 문예비평』 제111호 (2018), 178-191.

- 김진호,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우파 -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 문화』 제95호, (2017) 76-93.
- 유시은, 엄진섭, 윤덕룡, 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1집 2호, (2002), 117-153.
- 이지성,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중복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2018) 211-240.
- 이지성, “타인의 고통, 연민을 넘어 공감으로” 『대동철학』 제63집, (2013), 81-102.
- 이지성, “공감의 길, 고통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0집, (2017), 69-98.
- 이화숙, 원순옥, “북한에서 온 집단에 대한 명칭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6권 2호, (2016), 150-178.
- 정종훈, “탈북 새터민들의 상황과 한국 교회의 역할 모색” 『신학논단』 제60호 (2010), 135-158.
- 최승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교 단체의 역할과 과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신교 단체의 지원과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제29권 2호, (2017), 153-199.
- 최현중, “북한이탈주민과 기독교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신학과 선교』 제52권, (2018), 217-244.
- 홍용표, 모춘홍, “탈북민에 대한 환대 가능성 탐색” 『통일 인문학』 제78집, (2019) 313-354.

• 온라인 자료

- 경향신문, “‘천국의 국경’ 북한 마약 장면은 미원으로 연출한 것” (2013.01.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311812051&code=910303 (최종검색일 2018/07/12)
- 국민일보, “남한 정착 탈북민 10명 중 4명은 기독교인” (2019.02.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750&code=23111111&sid1=chr> (최종 검색일 2019/07/22)
- 법무부, “출입국 통계 - 체류 외국인”, 2018.12 기준. <http://www.moj.go.kr/moj/2412/subview.do> (최종검색일 2019/08/18)
- 세계일보 “탈북민 3만명 시대, 새터민? 귀순인? … 호칭 정리 안돼” 이창수 기자, (2016. 10.3) <http://www.segye.com/newsView/20161002001069?OutUrl=>

naver (최종 검색일 2019/07/22)

자유아시아방송, “탈북자지원교회설립” (2002-7.21 추정) https://www.rfa.org/korean/in_focus/85855-20020721.html?searchterm=utf8:ustring=%20%EA%B0%95%EC%B2%A0%EB%A7%8C%20%EB%AA%A9%EC%82%AC%201000-1-1(최종 검색일 2019/07/22)

자유아시아방송, “통일선교주간 그리고 탈북자” (2019.07.0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askquestion-06282019131944.html?searchterm=utf8:ustring=%20%ED%99%A9%EB%AC%B8%EA%B7%9C (최종 검색일 2019/08/0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추세 및 입국인원 현황, 2019년 6월말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최종검색일 2018/08/18)

논문투고일: 2019년 10월 23일

심사게시일: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03일

 • 국 문 초 록 •

2019년 상반기 한국전쟁 이후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은 총 33,02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범국가적으로 ‘통일의 준비’라는 명분으로 ‘적응과 지원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범사회적으로 각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었다. 기독교계에서도 다양한 관심으로 윤리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온도는 그다지 따뜻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경계인처럼 여기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탈북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이를 위해 탈북민들의 정착 단계 및 지원 현황 속에서 ‘하나원’ Hanawon을 중심으로 한 종교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교회가 탈북민의 관계성 가운데 북한 선교의 대상으로 탈북민을 도구화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시혜 Charity, 복지 지원 대상, 교회 성장의 도구로 여겨지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로 마사 누스바움 Martha Nussbaum의 ‘공감적 상상력 Sympathetic Imagination으로 탈북민을 마주하기’를 제안했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탈북민 선교, 하나원 종교 교육, 마사 누스바움, 공감적 상상력
